



Global Asset Talk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위험자산의 상대적 선전

지난주 글로벌 자산시장은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위험자산군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관련 백신 및 치료제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꾸준히 이어진 것이 주효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1차 무역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 역시 선택멘털 개선에 기여했다. 이에 주식시장이 가장 선전했고, 원자재 및 리츠 등 대체투자 자산군 역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 주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는 전주대비 0.35% 상승하면서 연초대비 누적 수익률이 플러스 전환했다.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 : 미국 발 펀더멘탈 주의보

글로벌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S&P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갱신 행렬을 이어가는 가운데 해당지수의 12개월 포워드 PER(주가이익비율)이 22.6배를 넘어섰다. 다만, 미국시장만 놓고 본다면 순항하던 자산가격과 실물경제의 밀월관계가 다소 소원해질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8월 고용시장에 대한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주(8월 9일~1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10.6만건으로 집계되면서 블룸버그 예상치(92.0만건)는 물론이고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 아래로 내려갔던 그 전주(8월 2일~8일, 97.1만건) 수치를 무려 13.5만건이나 웃돌았다.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민간소비도 우려된다. 컨퍼런스보드의 8월 소비자지대지수가 전월 91.7에서 84.8로 눈에 띄게 위축됐기 때문이다(2014년 5월 이후 최저치). 코로나 쇼크로 급락했던 지난 4월(85.7) 수치를 하회했다는 점도 우려되지만, 블룸버그 컨센서스(93.0)가 말해주듯이 전월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분석을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에 하나금융투자는 자산배분의 중립화 전략을 유지한다.

Asset Allocation

자산배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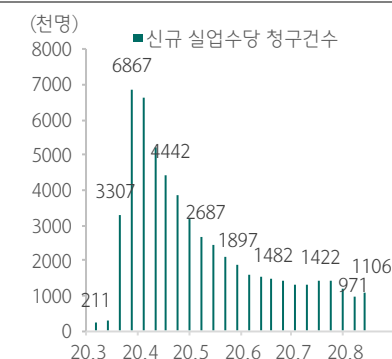
Economist/자산배분 나중역
02-3771-3638
jhna73@hanafn.com

RA 이규희
02-3771-7513
gyuhee.lee@hanafn.com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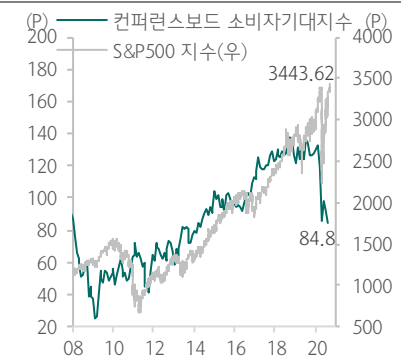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시 100만건을 넘어선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미국 소비자 체감경기와 주식시장간 괴리 주의보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1. 하나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주간 성과

자산그룹(BM)	8월 비중	자산군	8월 비중	벤치마크	BM 수익률	BM 수익률	PF 수익률
주식 (MSCI ACWI)	40.8%	국내	12.90%	KOSPI	0.78%		
		선진국	16.70%	MSCI WL	1.28%	1.23%	1.02%
		신 흥국	11.20%	MSCI EM	0.90%		
국채 (JPM GBI BI)	30.0%	국내	13.90%	국채+통안채(자체합성)	-0.29%		
		선진국	10.90%	JPM 글로벌 채권지수	-0.27%	-0.27%	-0.29%
		신 흥국	5.20%	JPM 이머징 채권지수	-0.32%		
크레딧 (Bloomberg Global IG)	10.3%	국내	4.90%	국내 크레딧(자체합성)	-0.08%		
		투자등급	3.80%	바클레이즈 글로벌 IG 회사채	-0.06%	-0.06%	-0.05%
		하이일드	1.60%	바클레이즈 글로벌 HY 회사채	0.05%		
대체투자 (S&P GSCI TR)	3.9%	원자재	1.80%	S&P GSCI TR	0.51%		
		리츠	2.10%	FTSE REITs	0.83%	0.51%	0.68%
유동성(Cash Index)	15.0%	유동성	15.00%	KRW Cash Index	0.00%	0.00%	0.00%
주간수익률						0.44%	0.35%
연초대비 누적 수익률						1.17%	0.27%

자료: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표 2. 자산배분 전략에 활용해 볼 수 있는 ETF

종목코드	설명	최근 NAV 흐름
IVV	iShares Core S&P 500 ETF - S&P500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대형주 ETF’ - S&P500 종목들에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투자하며 보수율 0.04%로 동종 ETF 중 가장 저렴. SPY 대비 규모는 작은 편이나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 - 글로벌 경기 우려 등이 자산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나 유동성 모멘텀 유효한 가운데 위험자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진국 증시 투자 권고	(달러)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 ICE U.S Treasury 7-10 Year Bond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 중기 국채 ETF’ - 만기가 7-10년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로 듀레이션은 약 7.5년. 보수율은 0.15%로 다소 높으나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추적오차 제공 - 미 연준은 지난 12월 FOMC를 통해 금리동결 장기화 시그널 제공.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하나,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의 채권보유 전략 유효	(달러)
MCHI	iShares MSCI China ETF - MSCI China 지수를 추종하는 ‘중국 주식 ETF’ - 중국 본토, 홍콩, 미국 등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ETF. IT와 금융 업종 비중이 각각 38%와 28%로 매우 높은 편이며 풍부한 유동성 제공 - 미중 무역협상이 1차 합의에 도달하였고, 기준율과 금리 인하 등 경기부양책에 따른 경기 반등 예상.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	(달러)
GLD	SPDR Gold Shares ETF - 금 가격을 추종하는 ‘미국 금 ETF’ - 금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큰 ETF로 보수율은 IAU 보다 비싸지만 유동성이 매우 높고 거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 보유 - 코로나19 발발과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높은 국면에 위치.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의 투자 매력도 높은 수준	(달러)